

아키타현: 외국인 관광객이 빠져드는 아키타의 농가민박



아키타현에는 대자연 속에서 다양한 농가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가민박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맞이하는 이도 마치 가족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농가민박이 지금, 해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농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농가민박’은 체험학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상품의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개했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농가민박’은 아키타의 여행상품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며, PR 포인트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농가민박에는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농가라고 해도 벼농사, 채소재배, 낙농, 화훼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모두 손님들이 기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목었던 농가는 아침부터 생마늘이 대량으로 나오거나,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거나, 소를 돌보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민박은 그러한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박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렬한 개성 또한 농가민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농사일을 돕게 하거나, 한 번에 다 먹지도 못할 만큼 가득 식사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도 숨어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안내한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피부로 느낀 외국인 관광객이, 다른 사람들에게게도 같은 마음을 느끼게 하고자 새로운 손님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아키타현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키타현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 다양한 수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아키타현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농가민박’입니다.

■ 담당 과 :

아키타현 관광문화스포츠부

관광진흥과 유객추진반

전화: 018-860-2265

FAX: 018-860-3868

